

사직동 그 가게에 가면 티베트 볼 수 있다

티베트 수공예품 판매하는 공정무역가게 '사직동 그 가게' 탐방

서울 사직동 배화여대 방면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작은 카페 하나가 있다. 30년 동안 문방구였던 가게를 개조해 '사직동 그 가게'라고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을 달고 손님을 맞는 곳이다. 가게 입구에는 열기설기 나무판자로 짜놓은 가판대가 있고 그 위에는 중고책들을 판매하고 있다.

가게 안에는 학교에서 쓰는 의자와 테이블 서너개가 놓여있고 선반에는 스카프 지갑 힐끗주머니 등 알록달록한 수공예품들이 놓여있다. 그리고 커피, 허브티, 인도식 밀크티 짜이, 유기농샐러드, 가정식 인도요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주택가의 가정집이나 구멍가게를 개조해 카페를 차리는 것이 요즘 유행이다. '사직동 그 가게'도 이국적 정취의 물건을 파는 어느 집포 가운데 하나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티베트 난민들의 평화운동을 알리고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다.

수익은 모두 록빠 활동을 위한 후원금에 쓰여가 된다. 한마디로 '사직동 그 가게'는 공정무역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여기서 파는 대부분은 수제품이에요. 직접 재배한 채소로 커리음식을 만들고 수제 초콜렛 포장 하나하나까지도 여기서 일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손으로 짚어 만듭니다." 임태영 매니저는 '사직동 그 가게'가 홈페이지 방식을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워크샵도 열린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문화를 이해하고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직동 그 가게'로 모인다. 티베트 인형 만들기, 팔찌 만들기, 멜로디 잔치, 인도 요리 워크샵, 핸드메이드 어린이책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워크샵 등 신기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임태영 매니저는 "워크샵들은 록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됐다"며 "티베트 인형 나눔 모임은 다람살라에 있는 '록빠 여성작업장'에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직동 그 가게가 신제품 개발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록빠는 한국에서 '피스 티베트 팽창전'을 개최해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전통 공연,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6일 '사직동 그 가게'에서는 인도 북부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티벳 유목민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산지대를 넘는 티벳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Journey from Zanskar'를 상영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최근 록빠는 다람살라의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무료 탁아소에서 돌볼 수 없는 3~12세 미만의 아동들이 함께 모여 공부도 하



'사직동 그 가게' 입구. 가판대에는 티베트 난민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 중고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 내부 모습. 티베트 여성이 만든 수공예품도 판매하고 있다.



직접재배한 채소로 만든 커리음식과 인도식 밀크티 '짜이'

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직동 그 가게'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책과 기금마련을 위해 매주 일요일 '록빠 문화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샵을 통해 도서관에서 실행할 환경·평화·예술·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책과 기금마련을 위해 잡지를 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태영 매니저는 "티베트 난민의 삶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록빠 홈페이지에 가서 탁아소 및 작업장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내실 수도 있고, '사직동, 그 가게' 블로그에 공지하는 여러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무엇보

다도 디자인이나, 음악, 각종 만들기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환영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사직동, 그 가게'에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정책에 저항하는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매년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자치구역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은 300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3분의 1은 어린이다. 티베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을 히말라야 너머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직동 그 가게'는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소비가 티베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다. (070)4045-6331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com

전시회 보고 복받으세요

동대 출신 작가 '2012 복 사세요'展 31일까지



스카프, 휘날리며 (비통맨)_52X73cm장지에분채, 금박, 2011 (한상운 작)

새해가 되면 염원을 기원하는 부적처럼 호랑이 모란 복주머니 돼지 등의 그림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는 액운을 쫓고 소망을 담은 그림들이다. 그림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

서울 재동 갤러리 에뽀드에서는 1월 31일까지 새해맞이 기획전시 '2012년 복 사세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근중 작가의 '모란 화원', 김민수 작가의 '민화', 김은진 작가의 '복 주머니', 이용애 작가의 '호랑이와 모란', 한상운 작가의 '돼지'를 만나볼 수 있다.

호랑이는 호축삼재(虎逐三災)라 해 삼재(화재·수재·풍재)를 막아주고 지병과 기근 그리고 병란을 막는 의미가 있다. 이는 액운과 잡귀를 막아 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모란은 화중지왕(花中之王)이라 해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며, 부귀를 뜻한다. 복 주머니는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차고 다니는, 여러 길상무늬가 새겨진 주머니이다. 길상의 뜻을 지닌 수(壽), 복(福), 부(富), 귀(貴) 글자가 무늬처럼 수놓여져 있다. 장수를 기원하고, 만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돼지는 재력과 부귀, 총명, 용맹, 승리를 상징하며, 병을 물리치고, 길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재(財)와 부(富)를 자랑하며 현실을 긍정하는 길운(吉運)의 메신저인 것이다.

한상운 작가는 돼지를 소재로 일본화 채색법으로 풍자적인 그림을 그린다. 장치에 아교 그리고 분체를 기본으로 화려한 색상과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선(線)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표현한다. 그는 돼지와 함께 물질적 욕망

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나타내는 '루이비통' 로고를 소재로 사용해 '비통맨(돼지 슈퍼맨+루이비통=비통맨)'을 표현했다.

김근중 작가는 캔버스위에 무성한 모란꽃 밭을 그렸다. 붉은 꽃부터 푸른 꽃에 이르기까지 싱싱한 화원을 그려냈다. 모란 화원은 메시지가 강한 일종의 상징적 도상이다. 모란의 부귀는 곧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귀를 마다할 이는 없을 테니, 작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모란을 통해 그려냈다.

호랑이 모란 복주머니 돼지

액운을 쫓고 복 가져와

한상운 김은진 등 5인 작가

26점 작품 새해맞이 기획전 열어

김근중 작가의 모란은 울오버 페인팅처럼 화면을 같은 패턴으로 가득 채운다. 그야말로 무성한 모란꽃 밭이다.

호랑이와 모란을 즐겨 그리는 민화작가 이용애 작가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과 모란의 탐스러운 자태를 은은하게 표현한다.

김은진 작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품과 보여주기를 위한 소비품들, 그리고 무병장수와 부귀를 의미하는 모란을 이용해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복을 표현하고자 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바람이 커진다. 그 재물에 대한 소유욕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02)747-2075

이아은 기자

국립민속博, 24일까지 임진년 설 축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전도 열려



설 세시풍속 중 하나인 '웃놀이'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1월 24일까지 임진년 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세시놀이 체험 ▷중국 춘절세시체험 ▷만들기 체험 ▷전통 연희공연 ▷세시 음식 맛보기 체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설 행사 등 7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는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전! 세시풍속 퀴즈왕', '웃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후호던지기, 세시음식 나누기, 북소리 나눠주기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 행사에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중국 춘절(春節) 세시 체

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 해의 길운을 점쳐보는 '참시(籤詩) 뽑기와 중국 겨울 별미인 '행탕후루' 맛보기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타악 공연이 3일간 진행된다. 22일에는 '퓨전 풍물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며 23일에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임진년 신년맞이 큰 굿'이 열린다. 또 23일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평택음악보존회가 마당굿(지신밟기), 고사소리, 구경놀이 등 흥겨운 풍물향연을 펼친다. (02)3704-3121

이아은 기자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상쾌! 가뿐!

new

▶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금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 다리, 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 즉시배달 (1~2일) www.BB21.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부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영불의 힘!

3쇄 돌입에 감사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름골 백승(白承)의安心과 희망의 메시지 정독 지음 | 신국판 | 길라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영불상애 · 관불상애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독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도 영불수행법

범아승가대회의 감사 소임을 역임한 정독 스님은 92년 전수염불 정진 중 영불상애를 얻었으며, 98년 하안기 정진 중에 관불상애를 체험했다. 한 국정보회의 이사로서 영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름골에 정토원(055-375-5844)을 설립, 다음카페 '아이타라(cafe.daum.net/emita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영불 수행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시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창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범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